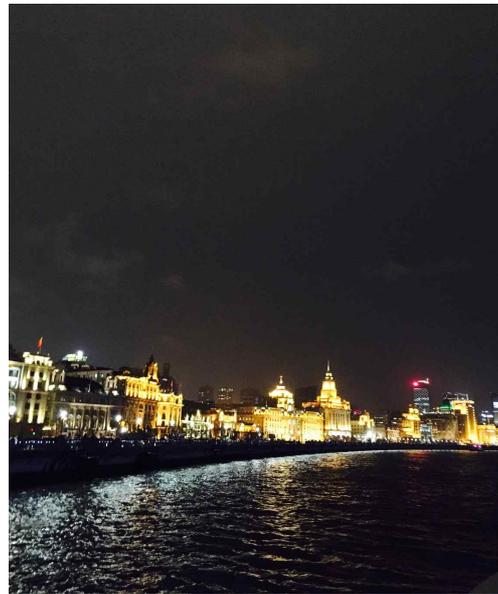


현장체험(국외) 소감문(개인 작성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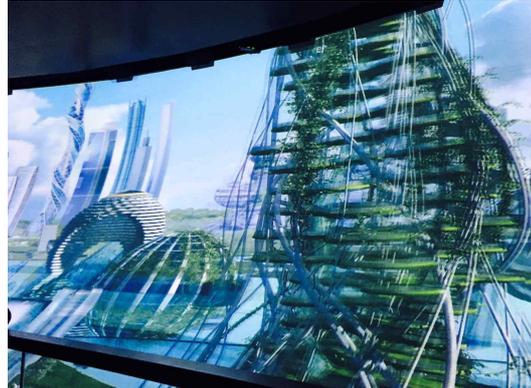
체험 명	해외현장체험학습-메이닝상해가늬		
체험국가 및 기관	중국 상해 및 남경	체험기간	2017. 01. 06. ~2017. 01. 09.
학과(부)	중국학부	성명	이지효
학번	20131642		

교환학생으로 서안에 갔을 때는 중국의 옛날 모습을 많이 보고 배우고 왔었는데 이번 해외 전공 연수는 중국의 옛날 모습과 현재 모습을 모두 보고 비교도 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 이었다. 상해를 먼저 다녀왔는데 상해에서는 강을 기준으로 하여 예전의 중국 모습과 현재의 중국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처럼 한쪽은 낮고 예전에 건물양식으로 되어있다면, 반대편은 높고 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 중국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동방명주이다. 468m의 높이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방송탑이라고 한다. 이렇게 높은 곳을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빠른 시간에 올라 갈 수 있으며, 층마다 다양한 볼거리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또한 미래의 중국 모습에 대해서도 보았는데, 사진처럼 미래에는 동방명주를 중심으로 상해 전체가 환경과 미관을 모두 고려하여 편리하게 바뀔다고 하였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본 상해라면 사진보다 더 크게 발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했다.



<상해 와이탄 금융 중심지>



<동방명주에서의 상해 미래 모습 시뮬레이션>

상해에서는 이러한 것 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습도 발견 할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상해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고, 그 작은 곳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작은 공간에서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춰있었다. 이것을 보고서 남경에 있는 대학살기념관에 다녀왔는데 뭔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픈 역사의 슬픔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남경사람들은 일본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모두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이를 기념하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였다. 다른 관광지와는 다르게 이 기념관은 분위기도 매우 숙연했다. 들어가기 전에 큰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죽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였다. 그 동상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동상들도 보니 일본인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알 것 같았고 우리나라도, 중국도 이러한 역사를 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남경 대학살 기념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저녁에는 늘 교과서에서만 보던 공자의 묘를 찾아갔다. 공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묘를 보고 공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 주변에 잘 보존 되어진 중국 전통가옥모습에 놀랐다. 영화에서만 보던 중국의 가옥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니 신기했고 현대의 건물들과는 다른, 전통가옥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저녁에 가서 그런지 야경 또한 아름다움에 한 몫을 더 한 것 같았다.

이 뿐만 아니라 남경에서는 중산릉과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상해에서는 보지 못한 중국의 예전 모습에 대해서 보고 중국인들이 얼마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고, 조상들의 귀한 유적들을 후손들에게 잘 보존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나간 시간이라고 그냥 우리의 의식 속에 남겨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역사를 잊지 않게 해야겠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 해외 전공 연수를 통해서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알 수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중국이 세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중국의 미래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안목을 갖추고, 중국을 전공으로 한 나에게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이었다.



<남경 부자묘의 야경>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상의 만족도와 관련, 아래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프로그램 주제가 흥미로웠다.	✓	4	3	2	1
2) 프로그램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	4	3	2	1
3) 프로그램 일정과 구성은 적절하였다.	✓	4	3	2	1
4)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	4	3	2	1
5)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4	3	2	1
6) 다음 기회에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	4	3	2	1
7) 주변 친구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고자 한다.	✓	4	3	2	1

PRIME사업단장 귀하